

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추천 관련

성명서

총장직무대행을 포함한 처장·단장은 중도 사퇴한 전 총장의 참모로서, 대학에 대한 감사를 초래한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사람들로 현재의 비상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.

일괄 사퇴하여 현 직무대리체제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정과 상식임에도 불구하고, 중도 사퇴한 총장의 참모였던 처·단장들은 관례를 주장하며 교수대표 4명 중 처·단장을 2명 추천하여 차기 총장 추대에 깊이 관여하려고 한다. (정석학원 산하 한국항공대학, 인하대학교의 교수대표 추천 사례와 비교할 때 이러한 추천은 타당성과 객관성이 없음.)

교수대표는 전체 교수의 의견을 모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나, 직대를 포함한 처·단장은 교수대표 추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수협의회 및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의적인 책임을 무시하고, 자천으로 교수대표를 추천하고 있다. 이에 우리는 처·단장이 중도 사퇴한 총장의 참모로 책임 의식 부재와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.

이러한 사유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.

-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교수대표 추천과정과 절차를 공개하고, 처·단장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.
- 현재 교수대표의 선임 절차는 무효로 하고, 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교수대표를 다시 추천하라.

2023. 05. 10

인하공업전문대학 교수협의회, 전국대학노동조합 인하공업전문대학지부,
인하공업전문대학 총동창회, 인하공업전문대학 근로자 대표